

名前:

현대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진을 볼 때든가 기사를 읽는 것은 물론 뉴스도 이제 TV를 통해서가 아닌 컴퓨터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책이나 만화책도 예전처럼은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가 필요한 것일까?

우선, 신문사는 어떤 기사를 쓰는 것일까. 신문사는 기자가 쓴 기사 전부를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신문사는 모두 각각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상에 따라 기사를 선택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수정당의 신문사는 그 경향에 반하는 기사를 독자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보의 통제라기 보다는, 신문사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터넷에서는 그 기사가 어떤 신문사의 것인지 상관없이 모든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문제 등에 대한 것이 아닌, 스포츠나 가수 스타에 관한 기사이다. 그런 기사에는 무엇인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볼 데가라든지, 누군가의 사상이라든지 조금도 들어가지지 않는다. 즉, 사람의 사회적 사고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잡지나 신문은 사회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편이 더욱 심도 있는 기사를 발견하기 쉬우며, 독자 자신의 생각을 세울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